

부활 제3주일

제 1독서 : 사도 2, 14, 22b-33

제 2독서 : 1베드 1, 17-21

복 음 : 루가 24, 13-35

순정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루가 24, 32).

강론

“예수님 알아뵈기”

범선배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여러 이야기를 우리는 각 복음서 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에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끝에서도 제자 두 명이 예수님과 빵을 나누면서야 그분을 알아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빵을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여 전념했던 네 가지 일 중의 하나였다는 점도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제 2독서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빵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할 성체성사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빵이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육체적인 굶주림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뵈고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빵을 나누는 것은 각자가 가진 재산을 남과 함께 쓴다는 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점 몇 가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빵이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단순한 외적 행위에 불과함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교류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만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빵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재주, 지능만을 남과 함께 혹은 남을 위하여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 혼자나 우리만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도 품는 것, 남의 어려움과 슬픔을 나누어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평범한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뵈게 될 것입니다.

소리

“자식이 웬순가?”

우리나라 교육이 어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편법으로 이루어진 대학입시 시비가 새정부의 출범을 빼그덕거리게 하더니, 이제는 엄청난 입시부정에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입시부정이 거론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것은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모든 식구가 입시전쟁을 치루고 있는 셈이나 다를 바 없기에, 적어도 입시만큼은 엄정하게 치루어지기를 바라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가?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할 공직자가 몇 해를 두고서 부정을 저질렀다니!

지난번의 편법입학 시비나 정치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이번의 부정입학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 놓고 보자는 부모들의 그릇된 자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아서 틀림이 없다.

이번 입시부정이 던진 충격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 이든 아버지를 버리려다가 어린 아들에게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옛날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한 못된 이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 [甲]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28

“이사악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창세 22, 1-8)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고대 가나안에 널리 유행하던 우상숭배의 경신례였다. 고고학자들은 서부 셈족이 살던 팔레스티나 북부 에집트 여러 곳에서 어린 애들의 유골을 집단적으로 발견하였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불살라 바치는 풍습을 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사로잡는 경신행위로 보았던 것이다. 성조시대에는 없었던 이 악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후 그곳 원주민들에게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악습은 율법(레위 18, 21; 20, 2-5)과 예언자(예레 7, 31; 에제 23, 37)들에 의해서 철저히 금지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이 악습에서 온전히 빠져나오게 된 것은 유배시대 이후에 와서였다.

이와 같은 경신례적 배경이 깔려 있는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하여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야기의 저자는 서두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한다. 여기서 시험이란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걸려들까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것과는 다르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정화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하여 시련을 보낸다는 의미이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마련하신 이 장애와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 “어서 말씀하십시오.”라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원문에는 “여기 제가 있습니다.”로 되어 있다. 이 말은 “하느님이 쓰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다. 하느님이 개인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오직 이 대목뿐이다. 다른 곳에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떻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히브리 성서 본문엔 이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 아들, 너의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로 되어 있다. 이는 이사악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3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산이 가까워 오자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인들의 풍습대로 종들에게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에둘러 말한다. 그리고 아들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사악

에게는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겨 든다. 종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자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아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저자는 둘 사이의 대화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억제하고 간결한 문체로 처리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깊은 고뇌에 빨려들어가게 한다.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각자의 짐을 지고 한참 길을 간 후에 이사악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다. “아버지!” “에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버지는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회피성 대답은 자신도 모르게 발설한 예언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하느님께서서는 이사악 대신 뿔이 덩불에 걸린 수양을 제물감으로 마련해주셨기 때문이다. 이 대답에는 비극적 운명을 타고 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연민이 깃들여 있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소망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히 하느님께서 아들 대신 다른 희생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1주일 후면 성소 주일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자녀들을 성직자나 수도자로 하느님께 바쳐야 할 때가 있다. 육친의 정은 본능적인 것이기에 그만큼 강렬할 것이고, 더 높은 사랑을 위해 이를 희생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여 훌륭한 성직자, 수도자를 양성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예맥 미술학원

• 입시 미술 • 아동 미술
• 취미(판화, 수채화, 동양화
교실 운영)

원장 김준태(시문)
주택은행 옆 천보정 회관 3층
☎ 231-5285

축! 확장 이전
결혼예물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김형태(울리아노)
박태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 82-9005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 75-0550

5분 교리

“기도생활”

기도를 “하느님과 의 만남, 또는 대화”라고 한다. 기도를 설명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를 떠올려보자. 잘 아는 두 사람이 우선 만나면 인사부터 한다. 그리고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서로 받은 도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소식을 전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거의 같은 양식이 하느님과 의 만남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도할 때의 인간의 상대는 하느님이고 그 만남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다는 점이 사람과의 만남에서와 다른 점이다. 만약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게 되면 기도가 아니라 주술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느님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의지이다. 참종교, 참신앙은 하느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공생활중에 자주 산으로, 외딴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셨다. 중대사 앞에서는 항상 밤중이거나 만동이 트기 전 새벽에 기도하시고 특히 열두 사도를 뽑거나, 수난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활동 자체가 바로 구원의 업적이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성부와 일치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활동과 기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활동이 끝 기도라니 하면서 따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틀린 생각이다. 어떤 신자가 기도하다가 몹시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본당신부님께 여쭙었다. “신부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신부님은 물론 반대였다. 꿈꿈이 생각하던 그 신자가 다시 “그러면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신부님이 좋다고 하셨다. 그 신자는 똑같은 자세로 가서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웠다. 이 이야기는 물론 우스갯소리고, 피를 부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과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앞의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뒤의 것은 기도의 생활화가 된다. 우리는 모조록 온전한 기도로 하느님과 만나고 기도의 생활화로 항상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참고 자료 : 그와 나 I. II · 지금 그리고 영원히(책)

교구 소식

- ※ 성소 주일 행사 : 5월2일(일) 오전9시30분 윤희관, 중·고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4월25일(오늘)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2. 교구 법원 : 4월26일(월) 오후4시 교구청.
- 3. 사제 평의회 : 4월30일(금) 오후2시 교구청.
- 4. 축! 건진 : 5월2일(일) 오전10시30분 호성동 성당.
- 5. 주일학교 책임자 모임 : 4월27일(화) 오후3시 가톨릭센터, 준비물-93년도 본당 주일학교 교육 및 행사계획표 1부, 대상-보좌신부, 초·중·고 담당수녀 및 주일학교 교육 책임자.
- 6. 가톨릭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연수 : 5월8일-9일 나바위 피정의 집, 접수-교구청 교육국.
- 7. 여성 42차 꾸르실료 : 4월29일-5월2일 천호 피정의 집.
- 8. 휘폴라레 모임 : 5월1일(토) 오후2시 군산 개정간호대학, 대상-일반인, 5월2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국교생부터 일반인.
- 9. 성모의 기사회 : 5월1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천호 피정 5월8일-9일).
- 10.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4월30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박찬길 신부.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적량의 반만 사용합시다

각종 상품의 제조회사에서 권하는 사용량의 반만 쓰기를 시작해봅시다. 절반의 양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양재 · 한복 · 흙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 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 앞 민정당사 옆
☎ 86-2715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콜베)
팔달로변 덕진 성당 옆
☎ 72-2665
75-3533

수의 전문
많은 협조바랍니다.
삼배도 있습니다.
이정금(모니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 77-1392

요심이 (1026) 김병오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 성전 신축을 위한 바자회

- 일시 : 5월1일-4일(4일간)
- 곳 : 전주 전동 성당
- 품목 : 음식부, 토산품

주최 : 전주교 전주교구 고산 성당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산농서실

고영선(마태오)
송준섭(로사리아)

- 전고사거리 ← → 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동주

- 부활 제3주일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1. 사랑의 성금 : 672,000원 성미 9가마, 성소 후원 저금통-1,770,920원, 빈첸시오회-400,000원(지출-복지시설 800,000원, 본당 불우이웃 18세대에 60,000원씩 도움)
 2. 알림 : 신부님 영적 예물 및 성미추머니 돼지저금통 사무실에 내주세요.
 3. 모임 : 제대회(27일 어머니미사 후)
 4. 축! 혼인 : 신랑-박민중(노엘) 신부-이순례(마리아) 2일, 후 12시.
 5. 금주 청소 : 중노-25, 26반.
 6. 차주 청소 : 중노-27, 인후1반.
- 지난주 봉헌금 : 1,015,660원 □ 교무금 : 1,09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인

1.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오늘.
 2.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수녀님반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반.
 3. 교무금 미납되신 분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병자 봉성체 : 30일(병자계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회합 : ①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제대회-29일 오전 10시30분
- 금주 전례 : 해설-유두석, 독서-나경섭 씨 부부.
봉헌-채용석 씨 가족
차주 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신태섭 씨 부부.
봉헌-김홍현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545,380원 □ 교무금 : 1,057,6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동욱

-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삽시다.
1. 페루 선교사 지원 교구 2차헌금 : 오늘 모든 미사중에.
 2. 모임 : ①꾸리아-다음주일 ②사목회-1일(토) ③성모회-공식미사 후.
 3. 다음주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매월 첫주)
 4. 성소 주일 : 다음주일(2차헌금)
 5.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전(오전 9시30분)
 6. 성소후원 저금통 :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7. 주일미사 참여와 기도생활은 신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8. 주일미사를 권하지 말고 미사 시작 10분 전에 성당에 옵시다.
 9. 차주 전례 : 해설-김미남, 독서①정광섭 ②이훈봉 봉헌-이기봉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431,060원(110,350)
□ 교무금 : 242,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증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부활 제3주일!
1. 회의 : ①반장회-다음주일(5월2일)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일(5월2일) 오후 2시
 2. 알림 : ①성지순례-5월28일(석가탄신일)(금) 장소-서울, 절두산 성지, 회비 7,000원(도시락 개인 지참) 신청 마감-5월2일까지 선착순(사무실에 신청바람) 레지오 단원은 텀블로 신청바람. ②다음주일은 성소주일 2차헌금 있음. ③성소주일 행사-5월2일(일) 오전 9시30분, 장소-윤호관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부활 제3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 꾸리아.
 2. 견진 교리 : 4월28일(수) 저녁 8시.
 3. 오늘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4. 가정방문 : 수, 목(4.28일, 29일)
 5. 땅자를 위하여 묵주 봉헌하실 분-에령회로.
 6. 청소 봉사 : 2구역 3반, 4반, 5반.
- 지난주 봉헌금 : 604,000원 □ 교무금 : 1,20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성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택

● 경 본당의 날 가족 대잔치 축

- 미사 : 공식미사(주교님 집전) 견진성사
- 본당가족 명랑 운동회
- * 선교와 친교의 전통 공동체 *
- * 예비자 교리 개강식 : 5월9일(일) 공식미사 후.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삼근

- 오늘은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1. 성소주일 행사 : 신학교 방문 5월2일 전 8시30분 출발. 회비 : 삼천원(중식 제공) 대상 : 청소년(4년 이상) 전학년. 2. 푸르실로 여성42차 감승회 : 29일~5월2일 이혼자, 김양희. 3. 회의 : 울드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다음주 후 2시30분. 성가대-28일 어머니 미사 후. 4. 가정방문 : 효성아파트 27일 전 9시. 5. 유아 세례 : 5월1일 후 3시. 미림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6. 재소자 생활자치 : 28일 후 2시 27일 10시 속개떡 봉사마담. 7. 주교 301동 신자면접 : 29일 저녁 8시 사제관으로 오십시오. 8. 레크레이션 지도자 감승회 : 5월1일~2일 나바위 교육관. 9. 사순절 돼지저금통 및 성미 : 다음주까지는 봉헌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57,530원 □ 교무금 : 1,449,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1. 오늘은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2. 꾸리아, 청년회 : 미사 후.
3. 성령 묵상회 : 26일(월)~5월1일(토) 오후 7시30분.
4. 반모임 : 28일(수) 오전-황실. 오후-동신.
5. 사목회 : 다음주일 미사 후.
6. 돼지 저금통을 가져 오십시오.
7. 교산 성당 신축을 위한 경품권 판매에 협조를 바랍니다. 금주 전례 : 이환자, 독서·봉헌 : 김희숙, 최중호. 차주 전례 : 한병갑, 독서·봉헌 : 송제완, 전영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상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섭

- 오늘은 예수 부활 제3주일입니다(오늘 본당을 위한 2차 헌금)
1. 유아 세례 : 오늘 오후 4시.
 2. 꾸리아 : 28일(수) 오전 10시.
 3. 성모 기사회 : 5월1일(토) 10시30분.
 4. 안나 요셉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5월2일)
 5. 한자 봉성체 : 5월4일(화) 오후 2시부터.
 6. 구역모임과 구역미사 봉헌을 사무실에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주일은 성소 주일(2차 헌금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8. 미사 안내 : 금주-즐거움의 연유, 천상 차주-신비로운 장미, 황금의 궁전.
 9. 여심 42차푸르실로 교육 : 박공순(윤리넷), 설태순(유스티나)
- 지난주 봉헌금 : 1,245,330원 □ 교무금 : 2,192,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1. 모임 안내 :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반석회,요심회-공식미사 후.
 2.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3. 반회장-총무 연합대회 : 26일(월) 오전 8시(합천 헤인사)
 4. 유아 세례 : 1일(토) 오후 3시.
 5. 성서 기초 특강 : 11일(화) 저녁미사 후.
 6. 2일(일) 저녁미사 후 관문 혼배 (조당해소) 하실 분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신축헌금 봉헌액 : 600,000원
- 금주 전례 : 해설-이환은, 독서①안문수 ②김미숙 봉헌안내-소철명 부부, 김갑수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정원희, 독서①우기도 ②배계향 봉헌안내-김상권 부부, 김경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324,070원 □ 교무금 : 2,251,000원

*** 수요성서교실개강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장소-전동성당 교육관, 문의-교구청 사목국